

M 45-10 / 2001. 6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10호 (2001년 6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 태 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일본 쌀 관세화이후 수입량 감소 .....	3
일본 2000년도 쌀 소비량 증가 .....	4
일본 쌀 표시제도 개정 .....	5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4) .....	14
중국 상해시 채소생산기지 확대 .....	23
중국 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25
중국 곡물 식부면적 2년 연속 감소 .....	34
중국 소맥 한국으로 대량 수출 개시 .....	36
중국 옥수수 수출의 6할 한국이 차지 .....	37
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신규칙 제정 .....	39
미국 쌀 생산자단체 차기 농업법 제안 .....	41
미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 .....	44
캐나다 재정지원 확대요구 농민데모 개최 .....	54
EU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56
EU 축산부문 농산물 시장전망(2000-07) .....	59
EU 여성농업인의 취업동향 .....	64
영국 구제역피해 관광산업에까지 확대 .....	67
II. 농산물무역 정보	
일본의 2000년도 농산물무역 개황 .....	73
III.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5) .....	82



## 농업 농정 동향

---

일본 쌀 관세화이후 수입량 감소  
일본 2000년도 쌀 소비량 증가  
일본 쌀 표시제도 개정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4)  
중국 상해시 채소생산기지 확대  
중국 쌀 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곡물 식부면적 2년 연속 감소  
중국 소맥 한국으로 대량 수출 개시  
중국 옥수수 수출의 6할 한국이 차지  
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신규칙 제정  
미국 쌀 생산자단체 차기 농업법 제안  
미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  
캐나다 재정지원 확대요구 농민데모 개최  
EU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EU 축산부문 농산물 시장전망(2000-07)  
EU 여성농업인의 취업동향  
영국 구제역피해 관광산업에까지 확대

## 일본 쌀 관세화이후 수입량 감소

일본 농림수산성은 5월 26일 쌀 ‘관세화’ 2년째인 2000년도에 관세를 지불하여 수입된 쌀이 98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관세화 초년도인 1999년도 수입량은 225톤이었다.

고관세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수입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WTO 농업협상 등에서 관세 대폭인하 등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쌀 관세화는 국영무역으로 수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MMA 76만 7,000톤과는 달리 관세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 관세액은 킬로그램당 341엔으로 전년도보다 10엔 17전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대폭 줄었다.

표 1 쌀 수입량과 관세상당치

	수입량(톤)	관세상당치(엔/kg)
1999	225	351.17
2000	98	341.00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食糧廳, 2001. 5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일본 2000년도 쌀 소비량 증가

일본의 2000년도 쌀 소비량이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이 식량청의 ‘1인 1개월당 쌀 소비량’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1인 1개월당 쌀 소비량은 5,147g으로 전년 평균보다 5g 증가하였다. 1996년도에 통계조사를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를 상회하였다.

1인 1개월당 쌀 소비량은 96년도가 5,346g이었으며, 이후 매년 감소하여 99년도는 5,112g이었다. 2000년도는 생산자 가구가 6,487g으로 전년도보다 1.7% 줄었지만, 조사가구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가구가 5,020g으로 0.4%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0.1% 늘었다.

쌀 소비가 늘어난 것은 주먹밥, 쇠고기 덮밥(牛丼) 등이 쌀 가격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결과로 보고있다. 특히, 외식에서도 자주 쌀밥을 먹는다는 점, 일본형 식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표 1 쌀 1인 1개월당 소비량

단위 : 정미 g/1인, %

	전가구		소비자가구		생산자가구	
	소비량	전년대비	소비량	전년대비	소비량	전년대비
1996	5,346	-	5,176	-	6,833	-
1997	5,249	▲1.8	5,089	▲1.7	6,757	▲1.1
1998	5,200	▲0.9	5,051	▲0.7	6,655	▲1.5
1999	5,142	▲1.1	4,999	▲1.0	6,596	▲0.9
2000	5,147	0.1	5,020	0.4	6,487	▲1.7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청, 2000.5

資料 : 日本 農林水産省 食糧廳, 2001. 5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일본 쌀 표시제도 개정

일본은 미곡상 및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포장 쌀에 대한 표시제도를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근거한 것이다. 쌀에 대한 표시제도는 1995년 11월 신식량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이번 JAS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졌다.

### 1. JAS법에 근거한 표시제도 개정

종래의 쌀 표시는 식량법에 의한 등록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현재에는 JAS법에 근거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쌀을 판매하는 생산자직매를 포함한 전체 업자에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JAS법은 1999년 7월 식품 소비형태의 다양화 및 맛, 신선도, 건강,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한 적절한 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 개정 가운데 쌀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 전체 음식료품에 관한 횡단적인 품질표시기준 제정

소비자의 입장을 중시한 식료정책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식품표시의 강화를 위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전체 음식료품(청과물 등

64개품목)에 대해서 농림수산성 장관이 ‘품질표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신선식품, 가공식품, 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쌀에 대해 각각의 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작년 3월 31일에 고시되었다. 이러한 기준가운데 신선식품과 수산물은 작년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슈퍼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 및 생선 등에는 ‘원산지와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적절한 표시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매장에 나가 순회점검을 실시, 그 결과 등을 공표하고 있다. 만약, 부적절한 표시가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장관명의로 지시서를 통보하고 있다.

또,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의 품질표시기준에 대해서도 쌀과 같이 금년 4월 1일부터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적용되고 있다.

## 1.2. 유기재배미에 관한 정의와 표시방법

유기재배미의 표시는 부적절한 표시를 배제하고, 생산기준을 통일한다는 관점에서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0년 1월 20일 농림수산성고시등 제59호)에 의해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표시제도에 대하여 특히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JAS법에 의해 신설된 등록인정기관(유기농산물의 인정기관수는 3월 19일 현재 36개)에 의해 그 재배 방법 및 취급 능력에 대해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자 스스로가 유기재배미라는 것을 표시하는 ‘유기 JAS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유기재배미의 표시는 유기재배미를 생산하는 농가는 등록인정기관에 의해 생산·관리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농지별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과정 관리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2000년 6월 9일 농림수산성고시 제 819호)에 근거한 인정을 받는다.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유기재배미 생산

과정 관리자로 인정되며, 예를 들어 출하용 30kg 종이포장에 자신의 유기 JAS마크를 첨부한 다음 유기재배미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종이포장은 도정되어 소비자용 작은 포장에 재포장되지만 유기재배미를 도정하여 작은 봉투로 포장하는 업자(JAS법에서는 소구분업자로 정의)에 대해서도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소구분업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2000년 6월 9일 농림수산성고시 제820호)에 근거, 유기재배미를 다른 일반 쌀과 구별해서 취급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유기재배미에 대해 ‘유기재배미’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다.

또, 수입 유기재배미에 대해서도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업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2000년 6월 9일 농림수산성고시 제821호)에 근거, 수입 유기재배미를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등록인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처럼 유기재배미(쌀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음)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유기’라는 표시는 일절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취급업자에게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JAS법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단순히 부적정한 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지만, 유기 JAS마크의 부정사용을 한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

또, 저농약·저화학비료 재배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

### 1.3. 국제 정합성의 확보

5년마다 기존의 규격을 개정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규격은 폐지를 하고, 규격제정 시에는 국제규격을 고려하도록 하고있다. 유기재배미에 관한 규격도 CODEX에 준거하고 있으며, 일본의 JAS 제도와 동등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표 1>과 같다.

#### 1.4. 표시와 내용의 일치 확인

식량법에서 제도화된 표시와 내용의 일치를 확정하는 ‘인증·확인’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1일자로 제도로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에는 일본곡물검정협회 및 도도부현의 소매조합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인증 등과 유사한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지정농림물자에 대해서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등급판정제도와 동등 수준으로 인정되는 등급판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정농림물자	국 명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주 : 이러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2001년 4월 이후 인정수입업자는 당해 수입농산물자에 유기 JAS마크를 붙일 수 있다.

## 2. 실제 표시

금년 4월 이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포장미곡의 표시에 대해서는 JAS법에 근거, ‘현미 및 정미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범위의 표시’(이른바 특성표시)에 대해서 소개한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게다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특성표시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표시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즉,

- ① 실제 보다 현저하게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해를 가져오는 용어, 그림, 사진, 기타 표시
- ② 범위 내에 표시된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 ③ 未검사쌀(국산품은 농산물검사, 수입품은 수출국의 공적기관에 의한 증명이 없는 쌀)의 경우, 산지와 지명, 품종 및 생산년도에 관한 용어
- ④ ‘新米’의 용어(단, 생산년도의 12월 31일까지 포장된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표시금지 사항이며, 그 기재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엄수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특성표시를 할 수 있다. 또, 특성표시는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성을 다해 재배한 일본 제일의 쌀입니다”, “제가 재배한 맛있는 쌀입니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표현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한편, ‘잔류농약검사필’ 및 ‘자연건조미’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증거서류 등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호소하기 위해서인지 ‘안전’이나 ‘건강과 미용에 좋다’라는 표시도 자주 볼 수 있다. 안전이라는 표현은 잔류농약 이외에도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있고, 무엇을 근거로 안전을 정의하는 것인지 곤란하며, 또 다른 쌀은 안전하지 않다 든가, 위험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암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표시는 부적당하다. 또, 건강과 미용에 관한 표시도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가지고 명확하지 않는 한 약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특성표시는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매업자의 재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업자의 문의가 많다. 그 회답 가운데 “어떻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장점을 표시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다. 특성표시는 판매업자가 팔고 싶어하는 쌀을 PR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표시금지사항을 이해해야 하고, 소비자의 표시에 관한 질문에도 자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시의 규제에 관련된 법률로서 JAS법 이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 경품유 및 부당 표시방지법’(통칭 景表法)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 법의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등을 공표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쌀 표시에 관한 경고가 있었다<표 2>.

또, 포장 등을 하지 않는 판매(비포장판매)의 경우는 별도로 JAS법에 근거한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4호)을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현미, 정미 등)과 원산지(국산미는 도도부현명, 수입품은 원산국명)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실제로 슈퍼에서도 정미기를 가지고 현미의 비포장판매를 하고, ‘○○현 △△히카리’라는 표시를 하여 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 등이 표시근거를 묻는 경우, 판매업자가 표시에 관한 근거(농산물검사법 등에 의한 증명)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 3. 적정 표시확보를 위한 식량청의 대응

식량청의 적정표시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① 등록판매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표시를 행한 업자에게는 적절한 지도, ②새롭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등록업자의 인식과 JAS법에 근거한 표시의 보급·계발, ③강좌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소비자 표시에 관한 보급·계발 실시 ④소비자 등(익명의 정보에 대해서도 대응)의 정보에 근거한 조사(기본적으로 즉일 대응)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4월부터 JAS법에 근거하여 품질표시제도로의 원활한 이동에 대비해 금년 1월에 식량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정미표시적정화추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할인점(584점포)을 대상으로 정미판매가격 조사와 정미표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지난 2월 20일에 공표되었다. 그리고, 4월 이후에도 JAS법에 근거한 표시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식량청 홈페이지(<http://www.syokuryo.maff.go.jp>)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표 2 1999년도 쌀에 관한 위반사례(제4조 제1호 우량오인)

번호	사건 개요
1	미곡판매업자가 정미판매시에 찌라시, 인터넷 등에서 「특수장치로 쌀에 전자에너지를 주어 잔류농약을 분해하는 동시에 쌀의 분자를 정상적으로 정리하였다」, 「○○의 쌀은 전부 잔류농약을 제거한 안전한 ○○의 쌀입니다」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정미후의 백미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를 강조하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종류의 농약에 대해서는 당해 장치의 효과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당해 장치에 의해 정미후의 백미로부터 잔류농약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	미곡판매업자가 정미 판매시에 전화번호부 광고에서 「건강은 잔류농약을 제거한 쌀에서!」 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해 정미가 보통 정미기에 의해 통상시의 방법으로 정미한 것으로 농약을 절감시키는 특별한 처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잔류농약 제거쌀이라는 표시에는 근거가 없다.

주 : 제4조(부당 표시의 금지)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서 들고 있는 표시는 할 수 없다.  
 1.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유통, 기타 내용에 대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계된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다고 소비자에게 오인시키기 위해 부당히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

#### 4. JAS법에 근거한 감시체제

JAS법은 부적절한 표시를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지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쌀 표시는 도도부현에 소재하는 식량사무소 또는 도도부현의 담당자가 실제로 매장 등에 나가 순회점검 및 모니터링에 의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표시가 확인된 경우, ①당해 업자에 대해서 농림수산성 장관명의 및 지사명의에 의한 지시서를 교부하고 있다. 그 지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 ②그 사실을 마스크 등을 통해서 공표한다. 공표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③농림수산성 장관명의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한다. 그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④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①의 지시 및 ②의 공표는 업자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시가 확인되면 조속히 지시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다.

유기재배미는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통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있다. JAS법에서 “일본농림규격에서 정한 명칭 표시 또는 이것과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제거 또는 말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거나 지정 농림물자의 판매, 판매 위탁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검사 시에 유기재배미에 관해서 부적절한 표시가 확인 된 경우는 즉각 제거 등에 관한 명령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 JAS법에서는 “누구라도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한 표시가 적절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장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농림수산성 장관에 대한 신청은 정부기관(식량사무소, 지방농정국,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등)에 한정하지 않고, 도도부현에서도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 쌀에 관해 이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식량사무소 또는 도도부

현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하면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JAS법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식량사무소가 주체적으로 쌀의 적절한 표시를 위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적절한 쌀 표시를 위해 식량법의 등록업자에 대해 “해당 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농산물검사법의 규정에 근거한 검사증명 또는 수출국의 공적기관 등의 증명이 있는 현미 및 정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JAS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품질표시 근거가 되는 이러한 증명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식량청 소비개선과 품질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DNA 판별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 대상의 포장미곡을 실제로 매입하여 표시와 내용의 일치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 특성표시도 포함한 표시내용의 확인, 정미품 위기준의 적합성 확인, 신선도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 5. 요약

쌀은 다른 농림물자와 달라서 특히 정미단계에서는 산지, 품종, 연산을 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비자도 ‘○○현 △△히카리’라는 표시가 상품선택의 판별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중시’라는 JAS법의 정신에 되돌아가서 구입시의 판단재료로서 적절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 농림수산성은 JAS법에 관한 정보(법개정 원칙, 각종 품질표시기준, 표시에 관한 문답, 등록인정기관일람, 유기농산물 인정의 기술적 수준 등)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資料：日本 農林水産省 食糧廳「輸入食糧協力會報」2001年 4月號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4)

### 1. 채소의 가격과 생산동향

#### 1.1. 전체

최근 채소의 가격은 일조부족, 한파, 적설 등의 영향으로 입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 2월은 상당히 상승하였다. 3월 이후는 적당한 기후조건과 기온상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하가 빨라져, 4월에 접어들어 채소가격은 전반적으로는 평년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 1.2. 엽경채소

배추, 양배추, 양상추는 일조부족으로 초기생육이 저하되어 크기가 적은 경향이 있으며, 시금치는 주산지인 북관동지방이 적설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평년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3월에는 안정을 되찾았다. 최근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 수준이다. 한편, 파는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평년을 대폭 하회하는 가격 수준이다.

#### 1.3. 과채류

오이, 가지, 피망은 연초까지 평년을 상회하는 가격 수준이었지만, 4월에 접어들어 입하량이 증가하여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 수준이 되고 있다. 토마토는 평년수준이다.

표 1 연도별 채소 생산동향

	1996	1997	1998	1999	2000
도매가격(엔/kg)	155	154	195	163	145
생산액(억엔)	22,986	23,090	25,953	22,110	-
식부면적(천ha)	524	514	506	502	-
수확량(만톤)	1,462	1,431	1,364	1,387	-

자료 : 동경청과물정보센터 「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채소생산출하통계」

주 : (1) 도매가격은 동경중앙도매시장 지정채소 14품목의 평균가격

(2) 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 기준 50품목의 합계

표 2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3월 중순			2001년 4월 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무	103	95	105	64	107	63
당근	100	92	87	157	96	92
배추	149	298	169	69	265	100
양배추	142	122	134	81	99	77
시금치	340	107	94	334	103	71
파	166	71	57	135	71	52
양상추	217	73	100	98	66	47
오이	283	105	85	153	79	58
가지	415	104	96	252	88	68
토마토	403	136	107	318	114	97
피망	599	152	129	343	125	75
감자	108	60	82	133	72	84
토란	213	91	96	180	92	94
양파	102	107	109	93	109	108
신선채소계	185	105	103	136	96	77

자료 : 동경청과물정보센터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 '평년대비'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이다.

##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0년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000톤으로 과거 5년간 약 1.5배 증가하였다<표 3>.

2001년 1~3월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31만 5,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0%이며, 2001년 3월에는 수입량이 감소하여 11만 6,00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93%이다<표 4>.

표 3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 :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	-	-	72	82
브로콜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무청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가지	0	0	1	2	2

자료 : 재무성 「무역통계」

주 :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 「식품검역통계」에 의한 것이다.

표 4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 천톤

	3월	전년동기대비	1~3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691	37	3,597	72
양파	27,865	79	82,529	91
마늘	2,108	76	6,406	99
파류	3,389	143	13,290	176
브로콜리	6,070	105	19,413	120
결구양상추	594	173	1,913	321
기타 양상추	562	227	1,617	328
당근 및 순무	6,482	101	14,154	158
우영	5,222	50	14,627	86
기타 근채류	545	1,466	739	807
오이 및 가킨	989	202	2,112	140
아스파라거스	2,448	68	6,297	79
가지	228	72	574	75
샐러리	855	121	2,139	144
버섯	41	69	219	128
피망 등	1,515	136	3,945	140
시금치 등	2		3	241
호박	29,157	108	64,343	95
생강	5,733	92	12,659	106
수박	69	55	91	40
메론	2,944	86	7,979	108
딸기	344	115	1,285	132
기타 신선채소	1,922	85	4,830	103
합계	115,909	93	314,792	110

자료 : 재무성 「무역통계」

### 3.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 주요국의 수입식물검사실적 속보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식물 검역 상황

단위 : 톤

		3월 19~25일	3월 26~4월1일	4월 2~8일	4월 9~15일
파	검사수량	515	476	528	484
	합격수량	323	293	309	256
	불합격수량	192	183	219	228
양파	검사수량	5,086	3,227	5,811	2,194
	합격수량	1,352	1,233	1,452	783
	불합격수량	3,734	1,994	4,359	1,411
토마토	검사수량	11	27	29	13
	합격수량	11	27	29	10
	불합격수량	0	0	0	3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169	171	53	40
	합격수량	169	171	53	40
	불합격수량	0	0	0	0
피망	검사수량	327	308	348	424
	합격수량	302	292	334	419
	불합격수량	25	16	14	5

자료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 : (1)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의 파,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및 피망 등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이다.

(2)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3)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그 후 합격이 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표 6 신선채소 수입식물 검역속보(2001. 4. 16-4. 22)

단위 : 톤, 건

품목	수출국	수입항	검역		합격		불합격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파	중국	요코하마항	7	138	4	80	3	58
		도쿄항	10	192	6	98	4	94
		나고야항	4	19	3	17	1	2
		고오베항	6	106	3	41	3	65
		오오사카항	18	90	14	36	4	54
		시모노세끼항	1	23	1	23	0	0
		하카타항	1	14	0	0	1	14
		나하항	2	8	2	8	0	0
	소계	49	590	33	303	16	287	
	합계	49	590	33	303	16	287	
양파	중국	요코하마항	5	154	3	106	2	48
		도쿄항	7	322	6	298	1	24
		나고야항	1	48	0	0	1	48
		고오베항	3	134	2	124	1	10
		오오사카항	2	20	2	20	0	0
		모지항	1	7	0	0	1	7
		하카타항	1	24	0	0	1	24
		소계	20	709	13	548	7	161
	미국	요코하마항	2	274	2	274	0	0
		도쿄항	1	91	1	91	0	0
		나리타공항	2	0	2	0	0	0
		고오베항	3	182	2	46	1	136
		나하항	1	1	1	1	0	0
	소계	9	548	8	412	1	136	
	뉴질랜드	요코하마항	6	332	0	0	6	332
		도쿄항	7	458	1	63	6	395
		나고야항	7	486	0	0	7	486
		고오베항	17	970	6	348	11	622
오오사카항		14	1031	0	0	14	1031	
모지항		9	303	0	0	9	303	
소계	60	3580	7	411	53	3169		
합계	89	4837	28	1371	61	3466		
토마토	미국	나리타공항	10	17	10	17	0	0
		소계	10	17	10	17	0	0
	합계	10	17	10	17	0	0	

방울토마토	한국	나리타공항	1	0	1	0	0	0
		시모노세키항	15	58	15	58	0	0
		하카타항	2	6	2	6	0	0
		후쿠오카공항	2	2	2	2	0	0
		소계	20	66	20	66	0	0
합계		20	66	20	66	0	0	
토마토합계	한국	나리타공항	1	0	1	0	0	0
		시모노세키항	15	58	15	58	0	0
		하카타항	2	6	2	6	0	0
		후쿠오카항	2	2	2	2	0	0
		소계	20	66	20	66	0	0
	미국	나리타공항	10	17	10	17	0	0
		소계	10	17	10	17	0	0
합계		30	83	30	83	0	0	
피망	한국	도쿄항	2	20	2	20	0	0
		오오사카항	5	32	5	32	0	0
		시모노세키항	39	187	39	187	0	0
		하카타항	8	191	8	191	0	0
		소계	54	430	54	430	0	0
	네덜란드	나리타공항	26	6	26	6	0	0
		간사이공항	8	12	7	10	1	2
		후쿠오카공항	2	1	2	1	0	0
	소계	36	19	35	17	1	2	
	뉴질랜드	나리타공항	74	65	56	49	18	16
		나고야공항	6	6	3	6	3	0
		간사이공항	23	12	18	11	5	1
		후쿠오카공항	6	3	5	2	1	1
		소계	109	86	82	68	27	18
합계		199	535	171	515	28	20	

주 : (1)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한 수량의 집계이며, 관세의 통관통계의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2) '불합격'은 수입검사의 결과 검역유해 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된 수량이며 살충처리 등 소요의 검역조치 실시한 후 합격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집계는 속보이며, 그 후 수정된 것이 있을 수 있다.

#### 4. 채소 소비

1999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속보가 공표되었다. 채소관련 사항을 발췌한 것이 <표 7>과 <표 8>이다. 채소의 종류별 섭취량은 1998년에 비해 「녹황색채소」와 「기타 채소」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또, 연령계층별 섭취량을 보면, 1999년은 1998년에 비해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표 7 채소의 종류별 섭취량(g/국민1인 1일당)

	1990	1994	1998	1999
녹황색채소	77.2	81.8	87.9	94.2
기타채소	173.1	171.7	186.7	196.1
채소계	250.3	253.5	274.6	290.3
서류	65.3	62.2	71.5	67.7
합계	315.6	315.7	346.1	358.0

표 8 채소의 연령별 섭취량(g/국민1인 1일당)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1995	259.3	260.5	278.6	303.3	332.8	327.8	284.4
1998	236.1	242.5	254.8	271.0	304.3	302.9	280.6
1999	248.9	258.0	263.9	292.2	322.4	328.1	291.9

주 : 녹황색채소와 기타채소의 합계치

## 5. 채소의 표준성분

1999년말 「일본식품표준성분표」의 5차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1982년에 4차 개정판이 공표되었고, 그 후 6차례에 걸친 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가 있었지만 식품의 다양화, 식품의 생산·유통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최근 조사·분석데이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된 것이다.

이번의 5차 개정판에서는 성분항목, 품목에 추가가 있었다. 즉 성분항목은 葉酸, 판토텐산 등이 추가되었고, 또 품목은 방울토마토, 상추, 즈키니 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수입냉동식품의 품목, 순이 있는 식품에서 계절에 따라 성분이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채소는 시금치 만)의 성분치가 추가되었다. 하기 표의 수치는 모두 可食部 100g당 성분이다.

표 9 국산품과 수입품의 성분치 비교

시금치의 비타민C(mg)	국산	신선 35	가공 19
	수입(냉동)	21	
서양호박의 비타민A*( $\mu$ g)	국산(신선, 가공)	4,000	
	수입(냉동)	3,800	

\* 카로틴

표 10 계절(수확시기)에 따른 차이

시금치의 비타민C(mg)	여름	신선 20	가공 10
	겨울	신선 60	가공 30

자료 : <http://www.maff.go.jp/work/010410begetable/4gatu/mokuj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중국 상해시 채소생산기지 확대

중국 상해시(上海市)는 중국의 최대 산업도시로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반면에, 채소·부식품의 공급압력이 크기 때문에 1988년 5월부터 중국의 농업정책의 하나인 ‘菜籃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품질 사료 생산·질병방제·가공·저장·수송 등의 4대 식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새롭게 채소·부식품의 가공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廚房’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상해시는 중국 최대의 산업도시인 반면에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기도 하다. 2000년말 현재,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로서 1990년의 4.3%에서 대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상해시의 농업생산 증가액이 1,300억 위안으로 12% 증가한 바와 같이 농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농가 1인당 연수입도 5,590 위안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상해시는 전국 토지면적의 약 0.07%인 6,350km<sup>2</sup>에 전체 인구의 약 1%인 1,307만명(외래인구를 포함하면 1,673만명)으로 중국 제일의 공업·상업·금융 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업생산의 비율은 낮고, 야채·부식품 공급이 부족한 경향에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의 하나인 ‘菜籃子’ 프로젝트의 추진은 상해시의 농업정책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이른바 ‘근교농업’이 발달하였다.

상해시의 채소생산기지 ‘菜籃子’는 근래 크게 변화하여 시민에게 폭넓은 환영을 받게 되었다. 현재, 상해시민의 채소·식육·가금·계란·수산물 등 1인당 소비량은 세계 평균수준을 넘고 있으며, 영양섭취량은 중급 개도국 수준에 달하고 있다.

상해시는 1988년 5월부터 ‘菜籃子’ 프로젝트를 실시, 6.71억 위안을 투입하여 생산기지, 가공기업, 유통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고, 2,583개소의 양돈·양계장을 신설 또는 개조·확장하고, 1.07만 ha의 채소밭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량품종의 번식·보급, 고품질 사료의 생산·질병방제·가공·저장·수송 등의 4대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채소·부식품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상해시는 도시건설과 농촌부에서의 공업경제발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부터 새로운 ‘菜籃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채소·부식품 생산 거점을 근교농촌부에서 농촌부로 이전, 품질 향상, 생산기지 대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에 대응한 생산·유통·판매의 일체화를 진행하여 산지직거래에 의한 유통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상해시 정부는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 새롭게 ‘廚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채소·부식품의 가공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규격화·간편화·소포장화 등을 장려하고 있고, 또 295개소의 시설원예시설을 건설, 사철 공급과 녹색·유기채소의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資料 : <http://www.maff.go.jp/soshili/keizai/kokusai/kikaku/2001/2001040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중국 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1. 최근 10년간 쌀 시장의 회고

#### 1.1. 제1단계(1991초에서 1993년 10월)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쌀 시장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91년, 1992년, 1993년 중국의 쌀 생산량은 각각 1.84억톤, 1.86억톤, 1.78억톤, 가격은 920위엔/톤~1,129위엔/톤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한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였다.

#### 1.2. 제2단계(1993년 11월부터 1995년 12월)

1993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중국 전역의 쌀과 유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1,167위엔/톤에서 최고 2,839위엔/톤에 달하여 1.43배가 상승하였다. 1993년 12월 25일 당시 부총리 주룽지(朱鎔基)는 북경에서 쌀과 유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쌀 시장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원인은 아래의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물가수준 변동폭이 비교적 심하였는데, 평균 매년 10%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폭등하였다. 생활필수품인 식량 또한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았다. 농업과 공업간의 협상가격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식량생산비가 상승하였고 이는 식량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식량생산의 적극성 및 농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식량의 수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예를 들면 1994년 계약구매 가격

의 상승폭은 40%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매가격의 상승은 식량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중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생활수준이 상승하면서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1.3. 제3단계(1996년 1월부터 현재)

1996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쌀 시장이 침체되면서 가격은 2,790위엔/톤에서 1,580위엔/톤으로 하락하였다. 이기간 중 1998년 하반기에 1,817위엔/톤에서 1998년 12월 2,268위엔/톤으로 24.82%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상승요인은 1998년 대홍수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이다. 1998년 쌀의 생산량은 1.91억톤으로 1997년에 비하여 6%가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쌀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원인을 다음과 같다.

1996년이후 중국의 쌀 생산량은 모두 1.9억톤 이상에 달하여, 생산량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나 수요량은 비교적 큰 변동이 없었다. 1995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76만톤, 수출량은 26만톤으로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다. 1996년 수입은 33만톤, 수출은 94만톤으로 61만톤의 순수출이 있었다. 1998년에는 수출이 375만톤, 1999년에는 270만톤에 달하였지만, 중국의 누적된 재고량 및 생산량에 비하면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쌀 수출량이 국내시장의 수급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다.

중국의 쌀 소비는 주로 주식에 의한 소비이며, 주식은 총 소비량 가운데 83.6%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96kg내외이며, 1년간 총 소비량은 1.2억톤에 달한다. 생활수준의 개선에 따른 식생활 구조가 변하면서 쌀 소비량은 감소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쌀 소비추세에 따라 중국의 쌀 소비량을 예측하여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인구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쌀 소비량은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사료용 쌀 소비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료에서 쌀이 접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 소비를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 2. 최근 쌀 시장의 현황

### 2.1. 생산

쌀 시장은 전통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보호가격에 의한 수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양질의 벼 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3,060만ha로 1999년에 비하여 2.2%가 감소하였다. 그중 조곡의 감소 면적은 90만ha로, 감소폭은 10%이상이다. 조곡의 경작면적은 667만ha인데, 그중 우량의 조곡재배면적은 50%에 달하고 있다.

표 1 최근 10년간 중국의 쌀 생산과 수출입량

단위 : 만톤

	생산량(쌀)	수입(쌀)	수출(쌀)
1990	18933	6	33
1991	18381	14	69
1992	18622	1	95
1993	17751	-	143
1994	17593	51	152
1995	18523	164	5
1996	19510	76	26
1997	20073	33	94
1998	19871	24.4	375
1999	19849	16.8	270.3

자료 : 「中國農業發展報告」, 각년호.

## 2.2. 재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의 쌀 재고량은 2,500만톤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한해 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 중국은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의 구조가 불합리하다. 즉 열등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반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량 품종의 쌀은 오히려 아주 작다. 따라서 중국은 재고량의 품종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 2.3. 수출입

중국의 쌀 수출량은 많지 않지만, 쌀의 수출은 중국의 식량수출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쌀 수출량은 270.3만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27.8%가 하락하였지만, 쌀의 수출은 식량수출의 35.6%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쌀 수출추세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한데, 그 주요 원인은 국제시장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세계 2대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이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취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없는 중국의 쌀 수출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4. 수요

식량에 의한 쌀의 소비량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가운데, 공업용 쌀과 종자용 쌀 등의 수요량 또한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조곡의 사료용 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량이 아직 많지 않아서 단지 사료소비에만 의지하여 침체된 소비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표 2 중국의 쌀 수매가격

단위 : 위엔/kg, 전년=100

	쌀수매가격지수	국영상점수매가격			
		계약수매가격	지수	협약가격	지수
1983	110.2	-	-	-	-
1984	100.0	-	-	-	-
1985	102.0	0.35	-	0.36	-
1986	106.3	0.36	101.3	0.44	122.0
1987	113.2	0.38	107.3	0.51	115.3
1988	119.8	0.40	105.3	0.61	120.4
1989	130.7	0.48	119.9	0.87	142.0
1990	92.6	0.51	106.2	0.82	93.8
1991	95.9	0.51	99.9	0.73	89.1
1992	97.4	0.55	108.6	0.65	89.0
1993	124.6	0.62	111.2	0.74	114.3
1994	154.0	0.89	144.8	1.14	153.3
1995	120.8	1.09	122.5	1.72	150.9
1996	104.2	1.33	122.0	1.71	99.4
1997	88.2	1.48	111.3	1.45	84.3
1998	-	1.46	98.6	1.34	92.4
1999	87.7	1.33	91.1	1.23	91.8

자료 : 「中國農業統計資料」, 각년호.

## 2.5. 가격동향

현재 중국의 쌀 가격은 지속적인 침체국면에서 일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회복기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0년 7월 중국의 장립종 쌀의 평균가격은 1,382위엔/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25.1%가 하락하였으며, 단립종 쌀(粳米)의 평균가격은 1,781위엔/톤으로 전년의 동기간에 비하여 18.09%가 하락하였다. 위와 같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든 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식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온포(溫飽)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이미 배불리 먹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잘 먹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수한 품질의 쌀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우수한 품질의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3. 쌀 시장의 전망

#### 3.1. 경작면적 및 생산현황

중국 농업부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조곡생산량은 3,75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7%가 감소하고, 품종의 구조조정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쌀의 생산량과 품질에 있어서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쌀의 총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약 2%)하였는데 반하여 우수한 품종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차 중국의 쌀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며, 품질은 개선되어 수급관계가 호전될 것이다.

#### 3.2. 재고

몇 년간 지속된 풍작과 소비 증가속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시장은 심각한 공급과잉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쌀 재고량이 심각하게 누적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품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일보하게 이루어지고, 소비량이 다소 증가된다면 공급과잉의 모순은 다소 해결될 것이다.

### 3.3. 소비

쌀의 소비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다소 증가할 것이며, 사료용 식량은 양식업의 점진적인 회복 및 쌀을 사료로 대체하는 소비창출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이다. 식품가공용 식량은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다소 호전되겠지만, 그러나 주조용 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소비량은 장차 증가하겠지만 증가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 3.4. 수출입

세관통계에 따르면 2000년 6월 쌀 수출량은 29억톤이며, 1월에서 6월까지 수출 총계는 152억톤에 달하여 전년의 동기간에 비하여 47%가 증가하였다. 1월에서 6월까지 쌀 수입의 총계는 5만톤에 달하여 전년의 동기간에 비하여 40.4%가 감소하였다.

### 3.5. 정책면

중국정부는 장립종 쌀을 보호가격의 수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부의 계약수매 또한 취소함으로써, 식량의 수매를 다양화하고 시장에 의하여 수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쌀 시장은 장차 주로 아래의 몇 가지 정책적인 방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1999년 대부분의 성(시)은 계약수매를 축소하였으며, 이후 정부에 의한 계약수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조절은 감소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조절은 강화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쌀 수매표준에 따르면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품질표시의 실시는 장차 쌀 시장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각 성은 수매가격을 대폭적으로 하락시켰으며, 그 하락 폭은 10%

이상에 달하였다. 현재 쌀의 시장가격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수매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호가격으로 수매한 조곡의 장립종이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공급과잉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이는 수매가격 및 판매가격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WTO가입이후 중국의 식량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005년 이후 농산물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면, 2005년에서 2020년 매년 식량의 평균수입량은 5,000에서 6,000만톤에 달하여, WTO의 가입전과 비교하여 식량의 순수입량은 50%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식량의 수입은 주로 옥수수, 밀, 콩 등이 될 것이다. 쌀은 무역자유화 이후 모든 식량가운데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품목이 될 것이다. 2005년 중국의 쌀 생산은 무역자유화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약 4%가 증가할 것이며, 가격은 약 3.5%가 상승하여, 중국은 장차 세계 3대 쌀 수출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20~30년 동안 중국의 쌀 수출은 국제 쌀 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이 6~7위로 하락하였다. 80년대 중국의 매년 평균 쌀 수출량은 단지 74만톤에 불과하였으며, 90년대에는 다소 회복하여 평균 수출량이 110만톤에 달하여 세계 총 수출량의 5~6%를 점하였으며, 1998년은 중국 역사상 쌀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해로 375만톤에 달하여 세계 쌀 시장의 총 수출량의 19%를 점하였다. 90년대 중반기 이전까지 세계의 쌀 무역량은 쌀 생산량의 4%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밀의 무역량이 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율이 약 20%, 잡곡이 약 10~12%이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다.

최근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세계 쌀의 무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미국이 세계 3대 주요 쌀 수출국이다. 무역자유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쌀의 무역량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에는 총 무역량이 3,000만톤에 달하여 중국의 쌀 시장의 발전과 수출을 위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량의 품종이 적고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중국

이 단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개선을 한다면 장래 무역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쌀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지만 공급초과에 대한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시장경쟁은 더욱 격화되겠지만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자료 : 「食糧與油脂」 2000年 第5期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중국 곡물 식부면적 2년 연속 감소

중국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도 곡물 식부면적은 1억 700ha로 작년에 비해 1.7% 감소하였다. 이것은 곡물생산의 경계선인 1억 1000ha를 하회하는 것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통계국이 전국 800여 현에서 6만 7,000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부동향조사에 의하면 금년의 예정총식부면적은 1억 5,600만ha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농작물 구성에서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면화, 유지원료, 담배, 채소 등의 식부면적이 증가하는 한편, 곡물, 두류, 서류(중국에서는 곡물통계에 두류와 서류 포함)등 곡물의 식부면적은 작년에 이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곡물경계선인 1억 1,000ha를 하회할 전망으로 이것은 곡물의 안정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금년 곡물식부면적은 1억 700ha로 작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곡물은 2.5% 감소, 서류는 3.1% 증가, 두류는 0.5% 감소하고 있다. 곡물의 식부면적 감소는 곡물가격과 시장의 수급균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곡물가격은 작년전반 대폭 하락하여 최근 수년동안 최저수준이었다. 작년 후반이후로는 가격을 회복하였지만 소맥, 쌀은 낮은 가격이 계속되고 있어 수익률이 낮은 작물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화의 식부면적은 463만ha(작년에 비해 14.9% 증가), 유지 원료는 3년연속 식부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금년도 소곡이지만 작년보다 1.6%증가한 1,568만 ha가 될 전망이다.

한편, 3월 16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무원의 농업 담당자는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하는 것은, 농업의 경제효율을 향상시켜 농민의 수입을 늘리는 근본적인 방도이다. 향후는 경지를 확실히 보호하고, 식량생산능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품종의 우량화, 품질과 효율 향상을 목표로 재배업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해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매입가격 하락에 의한 곡물 주산지에서 농민수입의 감소는 식부면적 감소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어떻게 곡물 식부면적의 확보와 농민수입의 증가를 양립시킬 것인가가 중국의 식량생산에서 최대의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li/keizai/kokusai/kikaku/2001/20010320beijing>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중국 소맥 한국으로 대량 수출 개시

중국 다롄(大連) 베이량(北良) 항구에서 출발한 3만여톤의 북방 봄밀이 며칠 전에 한국에서 검사, 검역을 순조롭게 통과하였다. 관련 기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대규모 밀 수출은 중국에서 처음이며, 이는 중국이 식량제품을 성공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적인 밀의 주요생산국이지만, 품종이나 질량 등의 원인으로 밀의 수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봄밀의 재고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양유진출구총공사(中國糧油進出口總公司)는 시장조사를 거쳐, 한국을 사료밀 수출의 주요대상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사료밀의 한국으로의 계속적 진출 여부는 수출 밀의 질량에 달려 있다. 또한 검역검사지표가 수입국가의 요구 수준에 얼마나 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 봄밀의 성공적인 수출을 보장하고,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검역국의 식물검사 담당자를 파견하여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밀 수출과 검역통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제2, 제3의 밀수출 계약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롄항에 선박을 이용하여 이번달 내에 내륙으로부터 운송한 밀을 한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출은 중국이 WTO가입 이후 활발히 진행될 밀 수출입에서 양호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新華社 新聞信息中心」 2001年 5月 15日字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 중국 옥수수 수출의 6할 한국이 차지

### 1. 옥수수 수출 1,000만톤 달성

중국의 2000년도 옥수수 수출은 1,047만톤(전년대비 143.1% 증가)으로 10억 5,170만달러(133.7% 증가)로 급증하였다. 수출량이 1,000만톤을 초과한 것은 사상 최고였던 93년(1,110만톤)이후 7년만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 옥수수 수출목표를 1,000만톤으로 설정하였다.

옥수수 수출이 급증한 요인에 대해서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싱크탱크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은 다음 5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① 한국 수출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중국 옥수수의 전량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다. 2000년도에 한국은 602만톤(381.0% 증가, 구성비 57.6%)으로 급증하여, 99년 1위였던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210만톤, 45.3% 증가), 인도네시아(83만톤, 44.1% 증가), 태국(27만톤, 105.2% 증가) 등이며,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 2. 한국 수출의 증가요인

한국 수출이 대폭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북경대학 재정학부 章政 교수는 “한국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소비자단체는 99년경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수입에 대하여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산·캐나

다산에서 중국산 옥수수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3. 품질향상이 수입확대

CAITEC는 그 외 요인으로, ② 중국 국내 옥수수시장에서 수년이래 풍작에 의해 재고가 증가한 것, ③ 지방정부가 옥수수 수출을 중시, 지역의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한 것, ④ 철도·항만 등 수송인프라의 정비를 확충한 것, ⑤ 옥수수의 수분과 불순물 함유율을 가급적 줄여서 수출상품으로서 품질확보에 노력한 것 등을 들고 있다.

章政 교수도 지난해의 수출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지도에 의해 옥수수의 품질이 향상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한다.

### 4. WTO 가입 후는 ‘北出南入’으로 대응

이와 같은 옥수수 수출확대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WTO 가입 후에는 중국의 옥수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농업전문가들은 “향후 주산지인 흑룡강성, 길림성 등의 동북지방에서 옥수수 수출을 확대시키는 한편, 소비지인 산둥성 등 남부지역에서는 싼 가격의 외국산 옥수수 수입을 확대시킨다. 즉 ‘北出南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 JETRO, Food&Agriculture, no. 2328(2001. 3. 12)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신규칙 제정

대만 보건부(Taiwan Department of Health)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및 등록에 관한 신규칙을 공표했다. 당국에 의하면 이 규칙은 대만에서 시판되는 대두, 옥수수 및 관련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규칙에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제품중량의 5%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시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그 대상은 가공식품, 조리식품, 포장식품 및 수출입품으로 하고있다.

대만에서는 200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는 대만 식품위생국(Taiwan Food Sanitation Bureau)에 등록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보건부가 공표한 신규칙에서는 향후 2~4년사이에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의무를 단계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 최초로 표시규칙 대상이 된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및 관련 제품이다.

대만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서 허용한계량을 5%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원료함유량이 제품중량의 5% 미만인 식품은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대만 입법부(Taiwan Legislature)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허용한계량을 1%로 설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내부관계자는 전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아직 없다.

이번 표시규칙은 대두 및 옥수수의 모든 유전자변형 품종에 적용될 예

정이지만 콘스타치, 대두유, 옥수수유 등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제공되는 포장되지 않은 제품도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향후 대만 보건부는 식품의 등록절차 및 대두·옥수수 이외의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의 개시일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표시규칙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를 원료로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포함’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표시는 일정 이상의 문자크기로 제품의 원료표시인 ‘대두’ 또는 ‘옥수수’ 다음이나 포장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기재한다고 한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공학이용) 제품이란 유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 유전물질을 삽입하여 유전자변형을 일으킨 제품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기술에는 종래의 번식, 교잡 및 염색체증폭(chromosome amplification)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부 규칙에 따라 ‘비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원료 불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 :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미국 쌀 생산자단체 차기 농업법 제안

미국 의회는 2001년 1월이후 차기 농업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농업단체와 품목단체의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청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생산자는 현행 농업법에 의한 자유로운 생산을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낮은 가격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①긴급 추가지불의 계속, ② 곡물 등 생산자에 대한 고정지불의 계속, ③마케팅론의 계속, ④새로운 소득안정대책(세이프네트)의 창설 등을 요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제안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액은 예를들면 미국농업연합회(AFBF)의 제안에서는 연간 129억 달러에 이른다.

### 1. 국내지지를 요구하는 생산자

3월 하순 공청회에서 증언한 쌀 생산자단체 대표도 다른 단체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 가운데, 최저가격을 보증하는 마케팅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과 증서제도(실질적인 지불상한 철폐)의 유지 요망하였다. 또, 새로운 수입안정대책에 대해서는 품목별 과거 5년간(96~00년) 수입을 기초로 면적당 기준수입단가를 계산하여, 이것을 하회한 경우에 '수입단가 부족분×각 생산자의 과거(96~00년) 평균식부면적×동 평균단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는 제안이다.

또, 쌀 생산자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베이스라인(고정지불 및 마케팅론에 소요되는 농업예산)의 '항구적인 대폭인상'을 요망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시산에서는 2003~2007년에 '실제로 필요한' 베이

스라인액은 최고로 연간 90억 달러, 이 중 마케팅론 지출은 대상 8품목(옥수수, 수수, 대맥, 오토밀, 소맥, 쌀, 면화, 대두) 합계가 연간 3억~33억 달러로서 현행 수준(2000년은 268억 달러)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이다. 더욱이 마케팅론 및 새로운 수입안정지불의 대상이 시산에서는 쌀과 대두 2품목에 집중한 결과가 된다. 이것은 이 시산이 2003년 이후 사료곡물을 중심으로 국내·국제가격이 상승한다는 예측하에 실시되었기 때문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출석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 생산비 이하 가격에 의한 쌀 수출의 가능성

쌀 생산자대표는 증언에서 “주요 농산물 가운데 쌀은 정부지불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생산자비용을 하회하는 유일한 품목이다”고 언급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서 쌀은 “대규모 관개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형, 고비용 농산물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2000/2001년은 쌀 농가의 생산비용 11억 7천만 달러에 대해 시장수입이 1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것을 정부지불 14억 6천만 달러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생산자비용은 실제 지불비용(종자, 비료, 농약, 기계, 고용, 관개, 조세공과 등)이 시장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대와 생산자 노임을 더하면 생산비 수준을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 된다. 또, 지역별로 보면 아칸소주나 미시시피주 등 습지대가 많은 주보다도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건조지대가 많은 주의 비용이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99년 생산자비용 중 관개비용은 전국 평균 1에이커당 12.5달러인 데에 대해 텍사스주에서는 21.42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3.08달러이다.

이러한 미국 쌀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태는 국제무역상에서는 생산자비

용 이하가격에 의한 수출로서 ‘덤핑’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생산자 스스로가 알고 있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쌀 생산은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가장 비용이 높은 동시에 정부지원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농업이며, 환경(수자원) 보전 등의 면에서도 지속이 곤란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 3. 대폭적인 농업보호는 향후도 계속될 전망

1998년 이후 미국 의회는 기존 농업예산에 더해 총액 25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에 대해 2002년도에는 현재 대통령에 의한 예산제안, 상하원의 예산결의와 함께 생산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하원의회는 5천억 달러의 ‘전략적 예비예산’ 중에서 향후 필요한 농업예산을 확보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 2002년 의회중간선거 및 2004년 대통령선거를 겨냥, 농촌지역(중서부를 비롯해 농촌주는 대부분 부시 지지)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공화당 의회는 결국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농업지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쌀에 대해서도 현행제도상 주요작물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 쌀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아 향후도 지금까지와 같은 대폭적인 농업보호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JA全中, 「國際農業・食料レタ-」, no. 71(2001.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미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은 농업생산의 환경효과를 다루기 위해서 연방수준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런 정책들은 토양침식 감소, 습지 보호 및 복구, 야생서식지 생성 등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농업환경문제, 농가소득지원정책에 대한 논쟁, 무역협상으로 인한 제약 등으로 인해 기존의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①정보보급 수단, ②경제유인책 수단, ③규제수단으로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 참여의 자발성 정도가 상이하다. 완전 자발적 방식에는 기술지원과 정부 비용분담 계획이 포함된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성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책수단이 차츰 규정화 되는 추세에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 상이하다. 정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함(가령, 교육 및 기술 지원계획)으로써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절차를 정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최적관리기법을 이행하도록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정책의 목표로 선정된 토지관리결정의 특성에 그 차이점이 있다. 정책은 토지경작 방식(가령, 토지은퇴)이나 생산되는 농작물의 종류에 관

한 농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농경지 사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장단점간의 차이점들은 농민이윤, 납세자비용, 소비자가격, 환경이득에 대한 개별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는 간단히 각 정책수단의 형태 및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교육 및 기술 지원계획

이 지원계획은 환경친화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이용하도록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토질과 같은 자료나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거나 농부로 하여금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계획의 범위는 다양하다.

이 계획은 공공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함으로써 효과나 적용방법을 모르는 농민들로 하여금 보전기법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하수와 같은 수자원의 유실억제, 토양생산성 보전, 생산자비용 감소 등 생산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완전히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효과성은 농민들에게 특정 관리기법의 적용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농업환경정책은 오랫동안 이런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에 의존해 왔으며,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교육 및 기술 지원계획은 1936년에 마련된 보전기술지원계획(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CTA)이다.

## 2. 정부표시제 기준

국립인증기준과 같이 사유재에 대한 정부표시제 기준은 환경친화적인 관리기법으로 생산된 농산물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농민들의 참여 여부는 자발적이며, 정부는 승인된 기법이나 인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인증기준을 통해서 특별 표시제의 가치나 의미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으며, 일반 농산물보다 환경친화적인 기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높은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인한 혼돈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런 제품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계획 참여에 따른 환경혜택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기준은 개별 참여로 인한 혜택이 시장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최근 미국 농무부(USDA)는 저투입, 유기 농작물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모든 생산, 유통 단계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유기적(organic)”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 일률적인 국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3. 경제적 유인책에 근거한 정책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의 인센티브 조치(가령 보상금)나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농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부(-의 인센티브 조치(조세나 과징금)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 부문에서는 단지 연방수준의 정의 인센티브 조치만이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농민들이 조치를 취하는데 규제방식보다 신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농민들은 토지이용, 관리기법 등을 변화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인센티브(보조금이나 조세)를 자유로이 비교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는 최저 비용 수준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농업환경 활동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4. 비용분담 및 인센티브 보상금 정책

환경친화적인 영농기법을 적용하고자 이용하는 농민들은 비용분담 및 인센티브 보상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비용분담 정책은 농민들이 이런 영농기법을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75%를 보상하는 반면에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된 인센티브 보상금 정책은 이런 비용을 초과하여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계획에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상 관리기법을 결정하고 직접지불을 제공한다. 비용분담 및 인센티브 보상금 계획은 농민들의 환경친화적인 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보상금 규모가 클수록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의 범위도 커지며, 참여자의 수도 증가한다. 야생서식지나 청정수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면서, 적용비용을 초과한 보상금은 환경친화적인 관리기법을 이용하거나 적용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센티브 보상금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관리기법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적용비용의 100% 미만을 보상하는 계

획은 대상 관리기법을 적용했을 때 환경혜택뿐만 아니라 경제혜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보상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특별한 규제가 없을 경우 대상 관리기법에 대한 보상금 계획은 생산자로 하여금 농작물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면서 환경손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과거 농업보전계획(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ACP)과 이를 이은 환경질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야생서식지개선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보상금 계획들은 주로 토지 경작방식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토양침식에 초점을 맞춘 이런 계획들은 다른 환경특징을 반영하도록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 5. 토지은퇴계획(Land Retirement Programs)

토지은퇴계획에 따라 농작물 생산으로부터 토지를 은퇴시키는 농민들은 매년 보상을 받는다.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은퇴 대상 토지를 선택하고, 직접지불을 실시한다.

이 계획은 토지를 생산으로부터 배제시킨 이후 오랜 기간 증가하는 환경혜택을 확보하는데 보다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경작될 수 없는 토지를 보호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은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다수의 농경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손실을 파악하지 못하며, 이런 계획의 보상금은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의 총 가치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계획들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이 시작된 1985년까지 토지은퇴계획은 1930년대 농업보전계획(ACP)이나 1950년대의 토사방지계획(Soil Bank Program: SBP)에서 일부 사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토지은퇴계획은 농업환경계획에 대한 연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선 토양보전이나 농산품 공급관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은퇴 조치의 전통이 CRP에서 계속 이어졌다. 이전의 계획과는 달리 환경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CRP의 자격요건이 고도침식가능토지(highly erodible land: HEL)로 제한되었다. 미국 농경지의 10%를 차지하는 3,600만 에이커 이상의 경작지가 CRP에 등록되어 있다.

1990년 이후에 습지유보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을 시행함에 따라 농경지에 대한 습지복구가 가속화되었다.

## 6. 환경세

환경세는 환경을 침해하는 오염배출량과 농업 투입재 사용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charges)을 의미한다. 총조세는 농민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환경목표와 멀어질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런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여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집행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세 정책은 오염자지불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환경침해 활동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농가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세는 연방수준에서 농업환경정책 수단으로써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조세계획(tax program)을 시행했지만 과세율이 너무 낮아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7. 조건부 상호순응 체계(Compliance Mechanisms)

관련된 여타 계획들에 대한 자격조건으로써 기본적인 환경순응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수단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개별 품목이나 조치에 대한 정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관리기법들을 승인해 놓고 있다. 기존 계획들이 강화조치로써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순응체계는 보전순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지원이 필요할지라도 농민 보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출이 필요하지 않다.

농민들의 참여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순응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순응체계는 자발적인 보조금 계획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농업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하다. 반면에 농업환경 인센티브의 분배는 연방 농가계획의 보상금 분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가축 폐기물관리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농업환경문제들은 이들 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농가계획 보상금이 반주기적으로 변동할 경우 물가나 고도침식가능토지의 경작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을 경우 계획 보상금은 낮을 수 있다.

1985년에 농업환경정책의 신기원을 이룬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에 따라 침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양이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순응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선택된 연방 농업계획에 의한 혜택(가령, 소득지원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전활동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가령, 초지보전계획(sodbuster) 규정에 따라서 침식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엄격한 토양보전계획을 적용해야 하며, 습

지보전계획(swampbuster)에 따라 농업생산용으로 습지를 전환시키는 농민들은 연방 농가계획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순응체계를 적용시킴으로써 농업 및 농업환경정책을 조정하여 통합시키게 되었다. 또한 초지보전계획과 보전순응규정은 토양침식을 줄이는 CRP와 결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 8. 규제수단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계획에 농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든의 여부에 따라서 규제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성과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대중의 건강이나 안정성의 미명아래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규제수단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런 규제수단들은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유도하는 모든 정책수단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반면에 농민들에게 특정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특정 환경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서 신축성이 가장 떨어진다. 농민들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참여수준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전통적인 농업환경정책에서 이들 규제수단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농민들의 활동을 차츰 규제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농업경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지대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거점 농업오염원을 규제하는 법률(Coastal Zone Act Reauthorization Amendments: CZARA) 둘째, 습지매립이나 침전물을 규제하

는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CWA) 셋째, 농가의 화학비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 살충제·살균제·쥐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Rodenticide Act: FIFRA) 셋째,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ESA)

직접·간접적인 수단, 자발적·비자발적 수단,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수단 및 농민들의 관리기법이나 성과수준을 감독하는 수단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양한 농업환경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수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농무부의 농업환경정책은 주로 장기 토지은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와 습지 및 토양보전에 대한 상호순응조치와 같은 두 가지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비용분담이나 기술지원계획 또한 적용되고 있지만 토지은퇴보다 총 농업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상호순응조치보다 적용대상 경지의 비중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1 미국의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수단	참여여부	정부역할	계획(program)
교육/기술 지원	자발적	관리기법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 보전기술지원(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CTA)
정부표시제 기준	자발적	환경표시제 지침에 따른 인증요건에 맞는 기준설정	◦ 유기농 인증 (Organic certification)
인센티브 정책	토지 은퇴 보상금	계약기간 동안 매년 보상금 지급(10년이상 장기계약)	◦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 습지유보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 ◦ 긴급습지유보계획 (Emergency Wetland Reserve Program: EWRP)
	토지 이용 보상금	최적관리기법의 적용비용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5~10년 중기계약)	◦ 농업보전계획 <sup>1)</sup> (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ACP) ◦ 수질개선계획(Wate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WQIP) ◦ 환경질개선장려계획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 야생서식지장려계획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
	환경세	의무적	단위당 과징금 징수
상호순응 체계	의무적	◦ 환경성과 기준설정 ◦ 보상금 지급전 요건충족 여부 결정	◦ 보전순응규정 ◦ 초지보전계획(Sodbuster) ◦ 습지보전계획(Swampbuster)
규제수단	의무적	◦ 자발적조치로 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농민 규제 ◦ 오염배출허가권 실시 ◦ 일정 농약에 대한 사용 규제 및 금지 ◦ 종이나 관련 서식지 보호 및 복구	◦ 해안지역관리법 재승인 수정안 (Coastal Zone Management Act Reauthorization Amendments: CZARA) ◦ 수질정화법 (Clean Water Act: CWA) ◦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법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 멸종위기종보호법 (Endangered Species Act: ESA)

주: 1) 1996년에 EQIP로 대체됨.

자료: ERS/USDA, Agri-Environmental Policy at the Crossroads/AER-794, 2001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캐나다 재정지원 확대요구 농민데모 개최

지난 3월 14일 캐나다에서 수천 명의 농가가 전국의 노상에서 데모행진을 실시했다. 정보당국에 의하면, 이번 항의행동은 농가가 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의 부족을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농가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국 및 유럽 농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3월 중순 캐나다 전국 각주의 도로에서 수천 명의 농가가 트랙터 및 트럭을 타고 데모행진을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토론토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농업용 차량이 집결하였기 때문에 교통은 거의 마비되었다고 한다. 이번 항의행진은 캐나다 전국의 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집결하였기 때문에 과거 수십년간 일어난 집회 중 가장 대규모 농민집회로 여겨진다.

각지의 데모는 농업부문 정부보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농가들이 호소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농가측은 거액의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의 농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농업보조프로그램을 통한 농가지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농가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세계의 농가와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 재무부 등 농가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외국 정부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에 의하면, 최근 캐나다 농가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기록적인 가격하락, 세계적인 경쟁격화 및 부채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농가는 과잉 정부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비료 및 종자 등 기본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농가측은 현재 농산물을 생산할 때마다 적자가 늘어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항의행진이 있기 불과 몇주 전에 캐나다 정부는 총액 약 3억 2,500만 US달러의 포괄적 긴급농업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농가측은 적어도 이것의 2배 정도의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농가들은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식부면적별로 농산물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총액은 약 32억 5,000만 US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반클리프(L. Vanclif) 농업부 장관은 일부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증액은 재원 제약이 최대 장애라고 한다. 때문에 농업부 장관은 앞의 포괄적 지원대책의 총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명하고 있다.

자료 :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EU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광우병과 구제역 사태로 인해 EU의 공동농업정책의 장래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는 2002년에 있을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기대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유럽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2개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들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EU 농업위원회 소식지와 보도자료, 그리고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1. 유럽 시민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반응

응답자들 중 92%가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공동농업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50%에 불과하다.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12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에 따라 체크할 것을 요청하였다. 12개의 정책 목표에는 식품 안전성, 환경 보호,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농업 소득의 보전, 국제 시장에서의 유럽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이 포함된다. 확실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 모든 정책 목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점수는 76-97%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 수준은 16-57%의 수치

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 소농 보호와 농업소득의 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가장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 모두 식품 안전성과 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정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정책방향, 즉 생산 보조금과 시장개입을 농민들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한 것에 대해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한 농민들의 63%는 공동농업정책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덴마크와 아일랜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 응한 농민들 가운데 46%만이 가계소득을 전적으로 농업에만 의존하는 전업농이었다. 농민들 중 59%와 일반 시민들 중 46%가 농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는데, 덴마크에서는 응답자들 중 13%만이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76%가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정보공개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정책의 국제적인 측면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강력한 요구가 있음이 드러났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관련하여, 두 응답자 집단 모두에서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들은 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농민들 중 20%, 일반 시민들 중 10%에 불과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럽연합 확장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WTO와 국제 무역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농민들 중 65%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 77%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각 응답자 집단들 중 매우 소수만이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시민들 중 85%, 농민들 중 66%). 언론출판물에 의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두 집단들 가운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농민들은 텔레비전 못지 않게 전문화된 농업 관련 언론출판물에 의존하고 있었다(64%).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일반 언론출판물에 의존하고 있었다(61%). 평균적으로 응답자들 중 10% 정도가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활용 정도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는데, 가장 높게는 오스트리아 농민 응답자들 중 27%가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장 낮게는 그리스 농민들 중 2%만이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활용 정도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남성이 평균적으로 2배 정도의 인터넷 활용율을 보였다. 농민들 가운데에서는, 젊고 대농경영을 하는 농민들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는 EU의 15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OS 갤럽이 수행하였으며, 최근에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EU 농업위원회가 2000년에 제정된 EU 규정 No. 84/2000에 의거하여,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정보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EOS 갤럽에 위탁한 것이었다. 이 조사는 2000년 9월 27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16,000명의 일반 시민들과 3,5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광우병과 구제역 사태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태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올 여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 EU 축산부문 농산물 시장전망(2000-07)

이 자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농업위원회에서 2007년까지의 농산물 시장 상황을 전망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타결된 UR 협정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며 현재의 환율 변동 추이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제품들을 중심으로 EU시장과 세계 농산물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육류에 관한 시장 전망을 요약하기로 한다.

### 1. 쇠고기 생산과 소비

쇠고기 부문의 예측치는 2000년 10월 첫째 주까지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추산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시장 변화와 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쇠고기 생산은 1999년의 주기적 감소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01년 말에는 정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2004년에는 최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산량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1996년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되었던 쇠고기 소비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1인당 소비량은 향후 2, 3년 동안에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의 생산 증가가 EU 내부 시장에서의 쇠고기 가격 하락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EU의 쇠고기 수입은 2000년에 큰 증가를 보인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감소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다소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EU 10개국 간에 체결되었던 최근의 “더블 제로” 협약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수입 증가는 장기간에 걸친 EU 내부시장에서의 저가격에 의해 억제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예상되는 EU 내부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EU의 쇠고기 수출 총량은 계속해서 수출 보조금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로/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 보조금은 크게 감소하였고, 어떤 상품의 경우 그 금액이 0에 도달하여 보조금 없이 수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쇠고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EU와 세계 시장에서의 쇠고기 가격 차이는 앞으로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6/2007년에는 최소한 몇 가지의 상품들에 대해서 수출 보조금 지원 없이도 소량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는 총 수출량이 공급 상황에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아젠다 2000’ 결정에 따라 시장 개입이 ‘안전망’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시점이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개관한 가정과 예측은, 중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EU 쇠고기 시장이 형성될 테지만 주기적 변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출에 있어서의 변화, 이는 주로 수출 보조금의 환급률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쇠고기 생산의 주기적인 증감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단이 되는 것 같다.

## 2. 돼지고기의 생산과 소비

1998년과 1999년에 돼지고기 생산이 크게 증가한 이후로, 2000년에는 약 2.5%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생산자 가격과 이윤 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튼 돼지고기의 생산이 1996-1997년의 수준 만큼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돼지고기 생산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지만, 과거의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소비는 2000년에는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돼지고기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입은 중기적으로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더블 제로 협약에 의해 시장 접근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의 수준과 비교할 때 수출은 단기적으로 더 줄어들 것 같지만, 중기적으로는 EU에서의 생산 증가와 국제 무역량의 증가로 인해 수출량도 약간 증가할 것이다.

### 3. 가금육의 생산과 소비

1999년에 있었던 벨기에에서의 다이옥신 파동, 이탈리아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창궐 사태로 인해, 2000년에는 1.2% 가량 생산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870만 톤이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금육의 시장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며, 이 부문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육류에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강한 소비자 선호는 지속적으로 가금류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인당 가금육 소비는 1999년의 21.4kg에서, 2000/2001년간에는 단기적인 감소를 보였다가, 2007년 쯤에는 24.5kg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관찰되었던 가금육 소비의 장기적 증가와 비교할만한 것이다.

수입은, 실제 국경보호 수준과 현행의 시장 접근이 유지되고 GATT의 최소시장 접근 및 기타 시장 접근 협약 하에서의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기적으로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은 EU에서의 생산 증가와 국제 무역량의 증가에 힘입어 중기적으로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EU 쇠고기 시장전망, 1998-2007

단위: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생산	7,768	7,742	7,830	7,925	8,097	7,995	7,811	7,891	7,957	8,013
생우 수입	39	38	40	45	45	45	45	45	45	45
생우 수출	83	98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조생산	7,624	7,681	7,750	7,850	8,022	7,920	7,736	7,816	7,882	7,938
소비	7,392	7,643	7,660	7,670	7,690	7,668	7,584	7,514	7,524	7,536
수입	348	384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출	695	872	555	580	732	652	552	702	722	742
1인당 소비량(kg)	19.71	20.33	20.32	20.29	20.29	20.17	19.90	19.68	19.67	19.68

표 2 EU 돼지고기 시장 전망, 1998-2007

단위: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생산	17,572	18,022	17,569	17,647	17,850	17,965	18,091	18,257	18,355	18,454
생돈 수입	1	0	1	0	0	0	0	0	0	0
생돈 수출	4	2	0	2	2	2	2	2	2	2
조생산	17,569	18,020	17,570	17,645	17,848	17,964	18,089	18,255	18,354	18,452
수입	44	55	67	68	69	71	73	75	80	86
수출	1,046	1,446	1,200	1,000	1,052	1,082	1,102	1,122	1,142	1,162
소비	16,367	16,729	16,537	16,713	16,866	16,953	17,060	17,208	17,292	17,376
1인당 소비량(kg)	43.64	44.49	43.87	44.21	44.49	44.60	44.76	45.07	45.20	45.34

표 3 EU 가금육 시장전망

단위: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생산	8,740	8,798	8,690	8,735	9,074	9,363	9,626	9,927	10,117	10,192
살아있는 가금수입	1	0	0	0	0	0	0	0	0	0
살아있는 가금수출	6	3	4	3	3	3	3	3	3	3
조생산	8,735	8,794	8,686	8,732	9,072	9,360	9,623	9,924	10,114	10,190
수입	327	323	343	353	363	372	382	391	401	410
수출	1,032	1,062	1,073	1,090	1,109	1,129	1,149	1,169	1,189	1,209
소비	7,991	8,033	7,956	7,995	8,325	8,603	8,856	9,146	9,325	9,390
1인당 소비량(kg)	21.31	21.37	21.11	21.15	21.96	22.63	23.23	23.95	24.38	24.50

#### 4. 세계 육류 시장 전망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가 급속히 산업화됨으로 인해, 소득 향상에 따른 육류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을 촉진하고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무역은 1999-2007년 사이에 60만 톤(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가가 될 것이다. 돼지 고기 무역은 40-50만 톤(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육의 국제 무역 또한 110-170만 톤까지(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구소련에서의 축산 부문 구조조정과 육류 수요 증대 추이가 세계 무역에 있어서 주된 불확실성의 잠재적 근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쇠고기와 가금육의 가격은 수요의 강한 증대 경향과 생산 증대의 제한으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의 폭은 주요 수입국가들인 몇몇 OECD 비회원국가들의 경제 회복 정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세계 쇠고기 시장의 구조 변화, 새로운 수출 국가의 출현과 다른 종류의 육류와의 경쟁이 쇠고기 가격의 상승 경향을 제한할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의 급격한 구조조정 이후, 돼지고기 가격은 일반적으로 예측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회복은 사료가격의 상승과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인데, 돼지 사육에 있어서의 효율성 확보 여부와 다른 종류의 육류와의 경쟁 심화에 따라 그 가격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다.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 EU 여성농업인의 취업동향

1997년도 유럽연합 15개국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농업노동력의 약 40%, 전체 경영주의 약 20%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농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남성농업인의 역할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공동체 통계청인 유로스타(Eurostat)가 펴낸 보고서는 여성농업인의 노동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여성농업노동력은 지난 20년이래 안정적

전체 전업농업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포르투갈은 1997년도에 47%, 그리스는 44%, 오스트리아는 42%로 평균치 40%를 상회하는 반면에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각각 29%, 덴마크, 영국은 각각 28%, 26%로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 전체 농업인구 중 남유럽국의 농민 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농민 3명 중 2명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인이다.

표 1 농업노동력 중 여성의 비율(1997년)

유럽연합 15개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프상부 르그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37%	35%	28%	35%	44%	29%	34%	29%	39%	36%	33%	42%	47%	37%	33%	26%

## 완전고용여성은 10명 중 1명을 약간 상회

유럽연합 15개국 농업경영체에 있어서의 노동은 특히 불완전 고용 상태를 나타낸다. 1997년 27%의 남성노동력과 12%의 전업여성노동력만이 완전고용의 상태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상황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6개 회원국에서는 1997년도에 남성 과반수가 완전고용의 상태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럽 15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고용상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덴마크에서는 여성농민 중 40%가, 아일랜드, 핀란드에서는 각각 32%, 30%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반면에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각각 4%, 6%, 7%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1997년 유럽 연합 농업에 있어서 여성 과반수(54%)가 완전 고용상태 대비 노동시간 1/4 이하의 가용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남성은 43%). 이러한 비율은 이탈리아(68%), 스페인(6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룩셈부르크(7%)와 네델란드(22%)에서는 위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표 2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1997년)

		유럽 연합 15개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완전 고용	여성	12%	27%	40%	16%	4%	15%	21%	32%	7%	10%	21%	6%	10%	30%	11%	26%
	남성	27%	61%	60%	42%	11%	22%	49%	57%	16%	57%	60%	23%	17%	36%	28%	51%
1/4 나절 이하	* 여성	54%	24%	24%	38%	58%	62%	34%	24%	68%	7%	22%	46%	44%	44%	57%	37%
	* 남성	43%	19%	15%	32%	47%	53%	23%	15%	55%	7%	13%	47%	41%	37%	36%	26%

\* 전업여성(남성)노동력의 경우임

## 5호중 1호는 여성농업경영주

농업노동력의 지위(경영주, 배우자, 다른 가족구성원, 임금노동자)는 남성과 여성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1997년 유럽연합의 여성농업인구 절반이 “배우자”의 지위인데 반해 남성은 60% 이상이 “경영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유럽연합 15개국에서 7백만 명 가량이 경영주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19%가 여성이었다. 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오스트리아(29%),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곳이 이탈리아(24%)이고, 네델란드(6%)와 덴마크(7%)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적으로도 적게 나타난 여성 경영주들은 마찬가지로 더 협소한 경영면적을 관리한다. 1997년 유럽연합 15개국에서 여성에 의해 경영되는 농업경영체 100곳 중 82곳은 “소농”으로, 3 곳만이 ”대농”으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남성들의 농업경영체는 각각의 특성이 68%와 9%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3 여성농업경영주의 비율(1997년)

유럽 연합 15개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19%	15%	7%	9%	20%	16%	21%	9%	24%	12%	6%	29%	19%	10%	10%	11%

(김현주 kimsisi@yahoo.com 지역아카데미)

## 영국 구제역피해 관광산업에까지 확대

영국에서 지난 2월 19일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그 후에도 피해가 확대, 4월 15일 현재 1,320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관광산업 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블레어 수상은 구제역 혼란으로 인하여 선거 일정의 연기를 결정했다. 영국에서 구제역 확대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소개한다.

### 1. 현황

4월 상순을 시점으로 영국에서 1,100개소 이상의 농장이 구제역 피해를 입어 약 137만두의 가축이 처분 또는 처분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소, 돼지, 양 등의 가축이 5,500만두 이상 사육되고 있는데, 매주 50만두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5%의 가축이 구제역에 의해 처분되었다고 한다. 구제역은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영국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감염된 가축,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대량 처분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확대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2. 원인과 대책

구제역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가축전염병으로서 1450년에 영국 정부

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판매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발생은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던 밀수입 육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국은 돼지에게 음식찌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급속히 확대한데 대해서 대규모 집약형 농업과 저가격정책의 자유무역추진 반성, 가축의 장거리운송 반성, 유기농업, 소규모 가족경영의 재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오고 있다.

- 구제역은 유기농업시대부터의 오래된 역병이며, 대규모 집약형 농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 싸고 풍부한 종류의 식료를 연중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지향을 반영하면 반드시 집약적인 농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오히려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은 구주보다 적다.
- 구주 농업은 보호되고 있으며, 전면적인 자유화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유기농업의 도입은 소득감소를 의미하며, 오히려 해외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 집약적이지 않은 농업은 단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규모확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 3. 관광업 피해

이러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국내총생산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 농업보다도 오히려 관광산업의 손실과 선거 지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제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기도 하고,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숙박객이 예약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수지방을 포함한 인기 있는 영국 관광지에 관광객이 크게 떨어졌다. 전염병 확대방지를 위해 가축이 대량 처분되고, 농장 등으로의 유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지역의 호텔, 레스토랑, 레저시설 등의 영업을 저조해지고 있다. 영국의 관광업 수입은 농업수입의 4배 규모이며, 관광수입의 저하율은 10%에 달한다. 구제역의 피해가 심한 캄브리아, 데본지구는 관광수입이 80%나 감소하였다.

1999년 해외 여행자가 영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125억 파운드이며, 최대 소비자는 미국인이다. 9월까지 국내 및 해외 관광업의 손실은 50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축의 대량 소각처분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회복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부 해외보도에서는 구제역이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보도하지 않아, 광우병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다. 영국 정부는 관광수입의 저하를 걱정하여 관광객 유인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지역의 정치인 및 행정당국은 구제역 확대를 염려하여 관광객의 유인에는 그다지 열을 올리지 않고 있다.

#### 4. 백신 사용

국제역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된 가축은 24시간 내에 처분한다는 긴급대책에 의해 바이러스 확대는 방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의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투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된 상태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현재 투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백신을 사용하면 '질병없음'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축산농가가 강하

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보상문제

영국 정부는 당초에는 가축을 처분한 축산농가만 보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영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비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농가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지원대책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농가에 대한 보상은 약 5억 파운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블레어 수상은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용자상한의 설정을 표명하고 있다.

## 6. 선거 영향

영국에서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이동이 일부 제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대다수가 농장이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거시에 농가의 투표권을 빼앗는 것이다. 지역의 위기를 인식해 주길 바라는 농가, 지역주민의 강한 요망으로 블레어 수상은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를 6월 7일로 연기하였다. 블레어 노동당정권은 상당히 이전부터 5월 3일 총선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블레어 수상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구제역과의 싸움을 시작한 상황이다.

자료 : JA全中, 「國際農業・食料レタ-」, no. 71(2001.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국제기구 논의동향

---



# 농산물무역 정보

---

일본의 2000년도 농산물무역 개황

## 일본의 2000년도 농산물무역 개황

일본의 2000년도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2.1% 감소한 6조 9,140억엔이며, 수출액은 7.2% 감소한 3,149억엔이다. 이 결과, 농림수산물의 순수입액은 6조 5,991억엔에 달한다<표 1>.

또, 금년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발동된 과,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표 1 농림수산물 수출입액(2000년)

구분		금액(억엔)	전년대비증감률(%)
수입	전체	409,384	16.1
	농림수산물	69,140	△2.1
	농산물	39,714	△3.0
	임산물	12,087	△1.4
	수산물	17,340	△0.3
수출	전체	516,542	8.6
	농림수산물	3,149	△7.2
	농산물	1,685	△10.9
	임산물	79	△10.9
	수산물	1,384	△2.1
무역수지	전체	107,158	-
	농림수산물	△65,991	-

## 2. 수입 동향

### 2.1. 품목별 동향

2000년도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3.0% 감소한 3조 9,714억엔이다. 품목별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표 2>.

- ① 옥수수, 대두 및 소맥은 수량,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 ②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수량, 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닭고기는 수량은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대폭 감소하였다.
- ③ 신선채소 및 신선·건조과실은 수량은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감소하였고, 냉동채소는 수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
- ④ 담배는 수량은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증가하였다. 알코올 음료는 수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
- ⑤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발동된 파는 전년에 비해 76.3% 증가한 37,375t, 생표고는 33.0% 증가한 42,057t, 골풀은 49.6% 증가한 2,030만장이 수입되었다. 금액면으로는 생표고가 전년대비 12.0%, 골풀이 28.7%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 2.2. 농림수산물의 주요수입국

주요 수입국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농림수산물 전체로는 미국이 27.1%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1.9%), EU(9.5%), 캐나다(7.0%), 호주(6.5%) 순이다<표 3>.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농림수산물로는 전년에 비해 15.4% 감소하여 점유율 3.0%, 순위는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8위이며, 농산물에 한정하면 전년에 비해 31.9% 감소하여 점유율은 2.2%, 순위는 9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 <표 5>.

표 2 주요 농산물의 수입수량 및 수입금액(2000년)

품목명	수량	전년대비증감률		
		수량	금액	전년대비증감률
	천t	%	억엔	%
농산물	-	-	39,714	△3.0
옥수수	16,111	△3.0	2,033	△5.3
대두	4,829	△1.1	1,319	△3.3
소맥	5,854	△2.0	1,111	△9.1
쇠고기	721	6.2	2,799	0.3
돼지고기	651	8.5	3,475	6.7
닭고기	568	3.1	904	△15.7
신선채소	857	3.7	1,018	△3.6
냉동채소	687	△0.3	891	△7.1
신선·건조과일	1,980	9.8	2,123	△2.7
담배	180	△1.5	3,128	2.0
알콜음료	447천kl	△3.5	1,891	△11.1
파	37,375t	76.3	-	-
표고	42,057t	33.0	101	12.0
골풀	20,300천장	49.6	100	28.7

표 3 농림수산물의 주요수입국 (2000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농림수산물계	미국 (27.1)	중국 (11.9)	EU (9.5)	캐나다 (7.0)	호주 (6.5)
농산물	미국 (37.7)	EU (13.1)	중국 (11.6)	호주 (8.2)	캐나다 (5.6)
임산물	미국 (17.1)	캐나다 (16.6)	인도네시아 (12.6)	말레이시아 (11.9)	중국 (7.9)
수산물	중국 (15.4)	미국 (9.7)	러시아 (8.0)	한국 (7.2)	타이 (7.0)

주 : ( )안의 수치는 수입금액의 구성비율(%)임.

표 4 주요국별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순위	국가	1999		2000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100만엔)	구성비 (%)	수입액 (100만엔)	구성비 (%)	
1	미국	1,930,256	27.3	1,871,001	27.1	△3.1
2	중국	771,841	10.9	823,663	11.9	6.7
3	EU	656,568	9.3	656,640	9.5	0.0
4	캐나다	479,504	6.8	481,745	7.0	0.5
5	호주	454,222	6.4	450,593	6.5	△0.8
6	태국	319,749	4.5	318,969	4.6	△0.2
7	인도네시아	316,910	4.5	298,269	4.3	△5.9
8	한국	244,846	3.5	207,148	3.0	△15.4
9	러시아	210,614	3.0	205,553	3.0	△2.4
10	말레이시아	197,828	2.8	184,867	2.7	△6.6

표 5 주요국별 농산물 수입실적

순위	국가	1999		2000		
		수입액 (100만엔)	구성비 (%)	수입액 (100만엔)	구성비 (%)	전년대비 증감률(%)
1	미국	1,525,033	37.3	1,495,670	37.7	△1.9
2	EU	525,488	12.8	520,116	13.1	△1.0
3	중국	437,788	10.7	461,030	11.6	5.3
4	호주	335,939	8.2	327,007	8.2	△2.7
5	캐나다	223,215	5.5	222,544	5.6	△0.3
6	태국	192,140	4.7	186,658	4.7	△2.9
7	브라질	105,960	2.6	95,216	2.4	△10.1
8	뉴질랜드	90,355	2.2	88,641	2.2	△1.9
9	한국	115,974	2.8	78,948	2.0	△31.9
10	필리핀	63,547	1.6	59,564	1.5	△6.3

### 2.3. 채소의 수입동향

일본의 채소류 수입금액 동향을 보면, 먼저 신선채소는 중국이 점유율 34.9%로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미국(21.4%), 한국(9.9%), 뉴질랜드(9.8%), EU(3.9%) 순이다.

또, 냉동채소는 최근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여, 2000년도에는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39.2%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미국(35.6%), 대만(5.6%), 태국(5.5%), 캐나다(4.5%) 순이다<표 6>.

표 6 채소수입량 및 수입금액(2000년)

	1999		2000		
	수량(t)	금액(100만엔)	수량(t)	금액(100만엔)	구성비(%)
신선채소	827,019	105,622	857,253	101,841	100.0
(1) 중국	271,787	33,236	294,259	35,575	34.9
(2) 미국	240,501	23,883	260,832	21,797	21.4
(3) 한국	26,891	11,006	27,334	10,110	9.9
(4) 뉴질랜드	143,278	10,299	159,751	9,935	9.8
(5) EU	7,257	3,878	8,720	4,008	3.9
기타	137,305	23,320	106,357	20,416	20.0
CIF가격(천엔/t)		127.7		118.8	
냉동채소	689,468	95,817	687,459	89,062	100.0
(1) 중국	235,037	35,024	249,196	34,945	39.2
(2) 미국	316,298	36,849	296,493	31,695	35.6
(3) 대만	25,667	5,151	25,695	5,024	5.6
(4) 태국	26,586	5,447	24,760	4,884	5.5
(5) 캐나다	34,634	3,860	39,044	4,006	4.5
기타	51,246	9,487	52,270	8,508	9.6
CIF가격(천엔/t)		139.0		129.6	

## 2. 수출 동향

농림수산물 수출액 가운데 농산물은 전년에 비해 10.9% 감소한 1,685억엔, 임산물은 10.9% 감소한 79억엔, 수산물은 2.1% 감소한 1,384억엔이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진주, 알콜음료, 가다랭이, 다랑어, 담배, 패주(貝柱) 등이며, 진주(천연·양식), 알콜음료, 가다랭이 및 다랑어류는 수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 담배는 수량은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패주는

수량,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수출금액의 21.2%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홍콩, 대만, 한국, EU 순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비해 15.7% 증가하여 점유율 11.1%로서 일본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표 7>.

표 7 주요 국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순위	국가	1999		2000		
		수입액 (100만엔)	구성비 (%)	수입액 (100만엔)	구성비 (%)	전년대비 증감률(%)
1	미국	71,947	21.2	66,752	21.2	△7.2
2	홍콩	61,029	18.0	59,840	19.0	△1.9
3	대만	56,868	16.8	44,010	14.0	△22.6
4	한국	30,287	8.9	35,037	11.1	15.7
5	EU	26,989	8.0	22,587	7.2	△16.3
6	중국	15,223	4.5	19,016	6.0	24.9
7	타이	10,628	3.1	9,537	3.0	△10.3
8	싱가포르	9,229	2.7	9,287	2.9	0.6
9	호주	4,538	1.3	5,799	1.8	27.8
10	스위스	6,487	1.9	4,923	1.6	△24.1

표 8 농림수산물 수출입수량 및 가격지수 추이(1995=100)

단위 :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전년대비 증감율	
수 입	수 량	농림수산물	104.9	102.3	95.2	102.1	105.5	3.3
		농산물	102.0	99.8	100.6	105.7	108.9	3.0
		곡물및곡물조제품	104.5	103.8	100.4	106.3	107.1	0.8
		과실및과실조제품	93.5	92.4	88.4	98.2	105.1	7.0
		채소및채소조제품	99.2	97.8	110.0	120.7	124.4	3.1
		설탕류	94.4	98.6	91.8	93.3	92.5	△0.9
		기호식품	109.4	107.1	102.3	109.3	118.7	8.6
		식물성유지	99.9	106.9	104.0	104.6	105.3	0.7
		조수육류및조제품	103.8	93.4	93.8	103.5	111.8	8.0
		낙농품및조란	105.1	108.4	104.8	110.4	112.7	2.1
		임산물	115.1	111.1	81.7	93.1	98.4	5.7
	수산물	101.9	100.1	94.2	101.6	103.9	2.3	
	가 격	농림수산물	111.2	114.9	112.5	98.4	93.4	△5.1
		농산물	119.6	125.7	124.9	101.4	95.6	△5.7
		곡물및곡물조제품	141.9	135.6	129.3	99.1	92.1	△7.1
		과실및과실조제품	119.7	124.1	131.1	119.4	107.1	△10.3
		채소및채소조제품	114.3	121.1	120.3	102.2	93.4	△8.6
		설탕류	109.3	111.8	108.7	70.9	69.5	△2.0
		기호식품	100.5	119.8	126.9	93.7	81.3	△13.2
		식물성유지	130.1	143.2	139.1	103.3	92.2	△10.7
조수육류및조제품		108.4	108.2	103.8	94.7	91.0	△3.9	
낙농품및조란		115.7	121.8	126.9	104.5	94.5	△9.6	
임산물		115.1	111.1	81.7	89.1	83.1	△6.7	
수산물	109.1	112.9	107.5	99.4	97.0	△2.4		
수 출	수 량	농림수산물	107.4	127.7	112.8	115.3	115.6	0.3
		농산물	97.5	117.5	108.3	111.4	107.9	△3.1
		임산물	166.8	164.5	87.3	98.4	87.6	△11.0
		수산물	117.5	138.6	122.5	122.8	131.4	7.0
	가 격	농림수산물	104.5	105.4	114.7	104.6	96.8	△7.5
		농산물	107.7	103.9	116.4	105.1	96.8	△7.9
		임산물	78.9	77.2	99.7	97.4	97.6	0.2
		수산물	102.9	110.5	112.3	103.9	95.1	△8.5

자료 :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01.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5)

##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5)

###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1.1. 전체 곡물

2001/02년도 세계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2000/01년도보다 늘고 소맥이 약간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1.5% 증가한 18억 6,208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1/0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5,918만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4,961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584만톤이 감소한 수준이다.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18억 9,043만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대비 0.8% 늘어난 2억 6,468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가 될 전망이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284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공급량이 줄어들고 소비량이 늘어나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5.8% 줄어든 4억 5,918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표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20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생 산 량	1,873.20	1,835.07	1,862.08	1.5
공 급 량	2,396.76	2,355.45	2,349.61	△0.3
소 비 량	1,876.38	1,867.91	1,890.43	1.2
교 역 량	280.84	262.66	264.68	0.8
기 말 재고량	520.4	487.53	459.18	△5.8
기말재고율(%)	27.7	26.1	24.3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 1.2. 쌀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2000/01년도보다 175만톤 정도 줄어들어 4억톤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591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공급량은 전년도보다 0.2% 감소한 5억 5,851만톤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9% 늘어난 4억 450만톤으로 전년대비보다 366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1.1% 늘어든 2,4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3.4%가 줄어든 1억 3,101만톤이나 기말재고율은 32.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생 산 량	408.56	398.16	399.91	0.4
공 급 량	537.37	536.44	535.51	△0.2
소 비 량	399.09	400.84	404.50	0.9
교 역 량	24.04	23.74	24.00	1.1
기 말 재고량	138.28	135.60	131.01	△3.4
기말재고율(%)	34.6	33.8	32.4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 1.3. 소맥

세계 밀 생산량은 2000/01년 5억 8,034만톤에서 2001/02년에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5억 7,23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 러시아, 중국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1/02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0/01년 5억 8,907만톤보다 약간 늘어 5억 9,341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3,513만톤으로 늘어났으나, 2001/02년에 다시 줄어든 1억 2,693만톤으로 될 전망이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2.2%가 될 전망이다.

2001/02년 소비량의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28.4% 감소한 1억 1,361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유럽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고, 특히, 중국의 재고량이 2000/01년도 5,417만톤에서 2001/02년도에는 1,375만톤으로 대폭 떨어질 전망이다.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6.1%에서 19.1%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생 산 량	586.98	580.34	572.35	△1.4
공 급 량	761.68	747.77	731.06	△2.2
소 비 량	594.25	589.07	593.41	0.7
교 역 량	135.13	125.3	126.93	1.3
기 말 재고량	167.43	158.71	113.61	△28.4
기말재고율(%)	28.2	26.9	19.1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 1.4. 옥수수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855만톤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2001/02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6억 1,328만톤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옥수수의 교역량의 경우 전년보다 0.1% 줄어든 7,859만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9%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에 이를 전망이다.

2001/02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 줄어든 1억 5,057만톤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줄어든 24.6%가 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생 산 량	606.74	583.83	608.55	4.2
공 급 량	779.21	758.02	763.85	0.7
소 비 량	604.85	602.90	613.28	1.7
교 역 량	85.77	78.67	78.59	△0.1
기 말 재 고 량	174.37	155.30	150.57	△3.0
기말재고율(%)	28.8	25.8	24.6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0/1년에 사상 최대인 1억 7,145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전년대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대보다 5.4% 늘어난 1억 6,948만톤으로 전망된다.

2000/01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대보다 7.3% 증가한 4,969만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5%에 이를 전망이다. 전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54.2%, 브라질이 25.6%, 아르헨티나가 11.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1%에 이를 전망이다.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879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685만톤과 비교하여 194만톤 정도 늘어나고,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6.7%에서 1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4	2001. 5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81	159.47	170.28	171.45	7.5	0.7
공 급 량	184.89	186.19	197.16	198.30	6.5	0.6
소 비 량	159.93	160.74	169.08	169.48	5.4	0.2
교 역 량	38.72	46.31	49.17	49.69	7.3	1.1
기 말 재고량	26.72	26.85	27.98	28.79	7.2	2.9
기말재고율(%)	16.7	16.7	16.5	17.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0, May.10, 2001.

##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 2.1. 쌀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2001년 5월 국제가격(5월 18일 기준)은 전년대비 36.2%, 전년 동월대비 39.8%, 전월대비 2.7% 하락한 톤당 275.5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5년 여름이래 최저수준이다.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년 4월(4월 13일 기준)에는 전년대비 18.7% 하락한 톤당 172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전월보다 0.6% 상승한 수준이다.

현재 쌀 공급량이 충분하고 수입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중립종 쌀 가격의 경우 계속 하락하고 장립종의 경우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2. 소맥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 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5월(5월 18일 기준) 현재에는 121.62 달러로 이는 전년보다 10.3%, 전년동월보다 7.9%, 전월보다 2.6% 높은 수준이다. 현재 기말재고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가격은 약 상승할 전망이다.

##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5월(5월 18일 기준) 현재 톤당 88.32 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는 2.7% 하락하였다. 현재 기말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6월부터는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 2.4. 대두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1년 5월(5월 18일 기준) 현재에는 171.69 달러로 전월보다 2.1% 하락하였다. 앞으로 기말재고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두의 국제가격은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9 평균	2000 평균	2000. 5	2001. 4	2001. 5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500.56	431.70	457.45	283.29	275.58	△36.2	△39.8	△2.7
쌀(장립종)	255.60	211.68	210.00	171.00	172.00	△18.7	△18.1	0.6
소 맥	122.06	110.28	112.75	118.59	121.62	10.3	7.9	2.6
옥수수	92.1	91.94	102.67	90.79	88.32	△3.9	△14.0	△2.7
대 두	185.9	193.98	211.72	169.67	176.19	△9.2	△16.8	3.8

주 :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자료 : 한국경제신문, UNICOM.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공급량	537.37	536.44	535.91	△0.2
기초재고량	128.81	138.28	135.60	△1.9
생산량	408.56	398.16	399.91	0.4
미국	6.50	6.10	5.91	△3.1
타이	16.50	16.83		
베트남	20.75	20.82		
인도네시아	33.45	33.11		
중국	138.94	133.00		
일본	8.35	8.64		
수입량	21.24	22.91	23.00	0.4
인도네시아	1.50	1.80		
중국	0.28	0.30		
일본	0.64	0.73		
소비량	399.09	400.84	404.50	0.9
미국	3.85	3.87	3.91	1.0
태국	9.60	9.99		
베트남	16.77	16.96		
인도네시아	35.90	36.20		
중국	133.76	134.30		
일본	9.45	9.30		
수출량	24.04	23.74	24.00	1.1
미국	2.80	2.65	2.41	△9.1
태국	6.55	6.70		
베트남	3.37	4.00		
기말재고량	138.28	135.60	131.01	△3.4
미국	0.87	0.78	0.70	△10.3
태국	1.41	1.55		
인도네시아	2.93	1.64		
중국	98.50	95.00		
일본	1.83	1.3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표 8 세계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공급량	761.68	747.77	731.06	△2.2
기초재고량	174.70	167.43	158.71	△5.2
생산량	586.98	580.34	572.35	△1.4
미국	62.57	60.51	53.38	△11.8
호주	25.01	21.00	23.50	11.9
캐나다	26.90	26.80	26.50	△1.1
EU15	96.80	104.95	97.45	△7.1
중국	113.88	102.00	104.00	2.0
러시아	31.00	34.45	37.00	7.4
수입량	131.18	124.19	125.85	1.3
EU15	25.09	24.90	24.98	0.3
브라질	7.56	7.90	7.50	△5.1
북아프리카	16.62	17.20	17.00	△1.2
파키스탄	2.00	0.15	1.00	566.7
인도	1.37	0.10	0.10	0.0
러시아	5.08	1.50	1.00	△33.3
소비량	594.25	589.07	593.41	0.7
미국	35.38	36.31	36.31	0.0
EU15	87.21	92.46	92.54	0.1
중국	115.62	112.99	114.00	0.9
파키스탄	20.45	20.50	21.68	5.8
러시아	35.37	35.25	34.65	△1.7
수출량	135.13	125.30	126.93	1.3
미국	29.65	29.94	29.94	0.0
캐나다	19.17	18.00	18.50	2.8
EU15	38.34	35.70	35.90	0.6
기말재고량	167.43	158.71	113.61	△28.4
미국	25.85	22.57	22.57	0.0
EU15	14.41	16.10	15.70	△2.5
중국	65.16	54.17	13.75	△74.6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2001. 5	
공급량	779.21	758.02	608.55	0.7
기초재고량	172.47	174.37	155.30	△10.9
생산량	606.74	583.83	608.55	4.2
미국	239.55	253.21	243.22	△3.9
아르헨티나	17.20	16.00	17.00	6.3
EU15	37.29	38.37	39.76	3.6
멕시코	19.24	17.70	19.00	7.3
동남아시아	14.61	14.47	15.08	4.2
중국	128.09	105.00	125.00	19.0
수입량	79.62	78.76	77.94	△1.0
EU15	10.87	10.78	10.88	0.9
일본	16.12	16.00	15.70	△1.9
멕시코	4.91	6.00	6.00	0.0
동남아시아	4.50	4.50	4.80	6.7
한국	8.69	8.00	7.50	△6.3
소비량	604.85	602.90	613.28	1.7
미국	192.48	198.00	196.60	△0.7
EU15	38.80	39.90	40.85	2.4
일본	16.32	16.05	15.70	△2.2
멕시코	23.65	24.10	25.30	5.0
동남아시아	18.99	19.01	19.43	2.2
한국	8.40	8.30	7.60	△8.4
중국	118.00	120.00	123.00	2.5
수출량	85.77	78.67	78.59	△0.1
미국	49.21	48.26	48.90	1.3
아르헨티나	11.94	5.50	11.30	105.5
중국	9.94	7.00	5.00	△28.6
기말재고량	174.37	155.30	150.57	△3.0
미국	43.63	50.75	48.72	△4.0
아르헨티나	0.47	0.49	0.50	2.0
EU15	4.11	4.64	5.71	23.1
중국	102.31	80.46	77.66	△3.5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 May. 10, 2001.

표 10 세계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4	2001. 5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84.89	186.19	197.16	198.30	6.5	0.6
기초재고량	25.08	26.72	26.88	26.85	0.5	△0.1
생산량	159.81	159.47	170.28	171.45	7.5	0.7
미국	74.6	72.22	75.38	75.38	4.4	0.0
아르헨티나	20	21.20	26.00	26.00	22.6	0.0
브라질	31.3	34.00	35.50	36.50	7.4	2.8
중국	15.15	14.29	15.70	15.70	9.9	0.0
수입량	40.49	47.63	49.07	49.66	4.3	1.2
EU15	16.77	15.74	16.68	16.68	6.0	0.0
일본	4.81	4.90	4.75	4.85	△1.0	2.1
중국	3.85	10.10	10.20	10.50	4.0	2.9
소비량	159.93	160.74	169.08	169.48	5.4	0.2
미국	48.74	47.43	48.26	48.39	2.0	0.3
아르헨티나	18.28	18.08	19.03	19.03	5.3	0.0
브라질	22.97	23.19	24.50	24.50	5.6	0.0
EU15	17.75	16.29	17.18	17.18	5.5	0.0
일본	4.98	5.08	5.03	5.09	0.2	1.2
중국	19.93	22.58	25.75	25.75	14.0	0.0
수출량	38.72	46.31	49.17	49.69	7.3	1.1
미국	21.9	26.49	26.94	26.94	1.7	0.0
아르헨티나	3.23	4.13	5.50	5.50	33.2	0.0
브라질	8.93	11.16	12.30	12.70	13.8	3.3
기말재고량	26.72	26.85	27.98	28.79	7.2	2.9
미국	9.48	7.90	8.16	8.02	1.5	△1.7
아르헨티나	6.22	5.61	7.48	7.48	33.3	0.0
브라질	6.8	7.45	6.75	7.35	△1.3	8.9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May. 10, 2001.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이정연 ljj1217@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M 45-10 세계농업뉴스 제10호 (2001. 6)

---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1년 6월

발 행 2001년 6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